

# “코호트 격리로 멈춘 병원 정상화 최선 다할 것”

제33대 전남대병원장에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 임명

“방역지침 완벽 수행 못해 진료 차질 빚어 지역민께 죄송”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만들기 위해 노력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해지는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 제33대 병원장에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안영근 교수를 지난 20일 선임 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

안 선임 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원 1동이 코호트 격리되는 초비상 상황에 따라, 이날 바로 진료과실장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안 병원장은 “병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장의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 코호트 격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또 안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보다 완벽한 방역지침을 수행하지 못해 진료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지역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송구

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응급환자들의 경우 타 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들과 원활한 협조를 유지해 갈 것이며, 광주시 등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기 중 병원 운영 철학에 대해 안 병원장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는 병원문화를 이뤄 신뢰받는 병원·감동 주는 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안 병원장은 1989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8년 임상교수로 부임한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년 동안 유전자치료를 전공으로 연수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이후 전남대의과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지닌 명의(名醫)로 인정받은 안 병원장은 세포재생치료사업단 구축,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등록사업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사업 등을 주도하며 국내 심장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고, 전남대 순환기내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같은 공로에 힘입어 안 병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정회원(2015년), 대한의학학립원 정회원(2018년) 등 의학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얻었다. 그는 지금까지 학술논문 1029편(국외 596편·국내 433편), 저서 34편, 특허 12건(국제특허 5건·국내특허 7건) 등의 연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국악방송과 전통문화예술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국악방송(사장 김영은)은 최근 국악방송 회의실에서 우수한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 및 아시아의 전통문화에 대한 활성화 전략 구축 및 공유’, ‘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제작 등 문화사업 추진 및 홍보’,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양 기관 보유 콘텐츠 및 지적 자원 활용’ 등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원은 전통예술의 비대면 관람 선도를 위해 국악방송과 긴밀히 협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은 ‘대동시리즈’ 유통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영상으로 제작한 ‘대동춤’은 11월 말 국악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이후 국악방송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참전용사·국가유공자 초청 특별오찬



신통일한국 안착 2020 희망전진대회 광주시 조직위원회(이상재·반명환·김진휘·연인기 공동 위원장)는 UPF, 신한국가정연합 공동 주최로 22일 오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 8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초청 보은 특별오찬회’를 개최했다. <2020 희망전진대회 광주시 조직위 제공>



‘현역 최고령’ 송재익 캐스터, 마이크 내려 놓다

6회 연속 월드컵 등 50년 스포츠 중계

국내 현역 최고령 캐스터인 송재익 캐스터(78)가 프로축구 K리그 중계석을 떠났다.

송재익 캐스터는 지난 21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27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전을 마지막으로 K리그 중계방송을 마무리했다.

1970년 MBC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한 송 캐스터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중계를 해 중장년 축구 팬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지난해 K리그2 중계방송을 통해 현장에 복귀한 그는 2019시즌 K리그2 28경기를 중계했고, 이번 시즌에는 K리그1, 2에서 총 26경기의 중계를 맡았다.

/연합뉴스

시교육청,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사진)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해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조기 신고 제도를 확립했다.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를 재산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100% 재산심사를 하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볼세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5 UHD 숏터(재)	00 축구야구말구(재)		00 구라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12 MBC 뉴스 20 특집 힐내라! 위대한 여러분 스페셜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제28회 임방울 국악제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안녕 우리말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뽀빠뽀 친구친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재)	00 뉴스브리핑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 <두산:NC>	50 닥터 365 5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비밀의 남자	15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 <두산:NC>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전교톱10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축구야구말구	50 MBC 뉴스데스크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00 펜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JUMP 2020 특별기획 콘서트 <호남연가>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35 나이트 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티!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보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7:45 꼬마하이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당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파라이스 중남미-열음과 불의 칠레>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토	21:30 한국기행
09:00 보로로 동화나라	16:15 로빈 후드	<이곳에 사는 이유 1부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당명 유치원(재)	순천만에 복 터졌네>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를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곰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음 10월 9일 庚午) ☎ 010-9790-8237

<p>36년생 허을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48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72년생 기도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84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96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해야 백 번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53</p>	<p>42년생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54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66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78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된 손해로 이어진다. 90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잡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02년생 한 번 빨은 말은 주위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인 하자. 행운의 숫자 : 20, 87</p>
<p>37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49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강풍이 불 것이다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73년생 승고르기를 하면서 숙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85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97년생 실재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행운의 숫자 : 10, 81</p>	<p>31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43년생 현재 상태로 진행하라. 55년생 가법계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67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9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91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법계 여기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2, 83</p>
<p>38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50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62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74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86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98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83, 90</p>	<p>32년생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44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56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68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80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92년생 성부가 경각에 달려 있으니 지금은 오로지 집중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9, 97</p>
<p>39년생 소신껏 처리하자. 51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63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5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99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82</p>	<p>33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라. 45년생 세밀하게 살펴 보면 중차대함을 찾게 될 것이다. 57년생 셈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69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81년생 소신과 자신감을 좀 더 내어 걸어야 이긴다. 93년생 소홀하다가 큰 결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27, 95</p>
<p>40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52년생 돌고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76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도모하기 위한 물질적 작업이 활발하다. 00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흠뻑 젖어라. 행운의 숫자 : 34, 63</p>	<p>34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46년생 자신이 술선수범 한다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58년생 순조로움을 더 할 것이다. 70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82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94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8</p>
<p>41년생 너무 경직 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53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65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느니라. 77년생 경사선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 정황이다. 89년생 서막에 이르자마자 즉시 가닥이 잡히리라. 01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71</p>	<p>35년생 스트레스 해소 잘 해 나가자. 47년생 습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59년생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71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83년생 당대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느니라. 95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9, 56</p>